

# KITA 도쿄지부

8월  
제1호

2021年8月2日

Vol. 72

## 주요 내용

- 금주의 경제·통상정보
  - 日 정부, 미·유럽 등과 연계하여 상계관세 발동 확대키로
  - 日 상용차 업계, EV트럭에서 중국과 격전
  - 日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역대 최대
-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
  - 日, 6월 완전실업률 2.9% 기록, 3개월 만에 개선
  - 日, 6월 광공업 생산지수 2개월 만에 상승

## 금주의 경제·통상정보

### 1 日 정부, 미·유럽 등과 연계하여 상계관세 발동 확대키로

-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부당하게 싸게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키로 함.
  - 상계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조치의 하나로 보조금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 산 철강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발동실적이 많은 국가와 연계하여 보조금관련 정보와 조사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
  -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관세 발동 신청 가이드라인(지침)을 오는 9월 상순까지 마련 예정
  - 올 가을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미국, 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5개 국가의 조사당국이 협력하는 체계를 발족시킬 예정
    - 브라질은 신흥국 중에서도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EU는 2020년 중국의 "일대 일로" 정책으로 투자를 받은 이집트 기업이 제조한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발동, 투자도 보조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

#### <주요국 상계관세 발동 건수(2020년 12월까지)>

미국	EU·영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일본
173	45	36	16	11	10	1

자료 : WTO의 사료를 근거로 작성

- 일본 정부는 우선 5개 국가간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
  - WTO에서는 그동안 중국을 염두에 두고 WTO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산업보조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안이 제기되어 왔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 2 日 상용차 업계, EV트럭에서 중국과 격전

- 일보 히노(日野) 자동차, 이스즈 자동차 등 상용차 업계가 소형 전기자동차(EV) 트럭 판매를 내년 개시기로 하고, 중국도 일본내 EV 상용차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일본 상용차 업계는 우선 주행거리 100킬로미터의 택배 용도를 상정하고 있으며, 배터리 비용과 충전 인프라 등 보급 등이 큰 과제
  - 히노는 2022년 여름경에 EV트럭 “듀트로 지(DUTRO Z) EV”를, 이스즈는 트럭 '엘프'의 EV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출시 예정
  - 히노와 이스즈는 모두 도요타 자동차가 중심이 되어 EV를 포함한 전동화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하는 상용차연합에 참여
- 일본 상용차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상용차의 EV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으며, 상용차 중에서도 트럭의 EV화는 장벽이 높기 때문임.
  - 배터리 코스트가 높아 차량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고, 충전 인프라 보급도 아직 미흡한 상태
    - 상용차의 경우 무거운 짐을 나르기 때문에 승용차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필요, 보조금 제도 없이는 도입이 사실상 어려웠음.
- 그러나 세계적인 탈탄소 추진에 따라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트럭의 탈탄소가 불가피
  -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운수부문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중에 화물자동차의 배출량 비율은 약 37%에 달함.
  - EU는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의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2035년 이후 사실상 금지,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30% 삭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同州에서 판매하는 모든 트럭을 EV나 연료전지자동차(FCV)로 전환

- 일본은 지난 6월 총중량이 8톤이하 트럭의 판매를 2040년까지 모두 전동차로 하고, 그 외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로 하는 목표를 정함.

#### <구미와 일본의 전동화 목표와 주요 트럭 업체의 움직임>

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2030년까지 대형트럭의 신차 CO2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삭감</li> <li>- 미캘리포니아주: 2045년까지 모든 트럭의 신차를 EV나 FCV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다임러 트럭은 2030년에 판매의 60%를 EV또는 FCV로</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트럭은 2040년까지 판매를 모두 전동차로(HV 포함)</li> <li>- 대형트럭은 2030년까지 2040년의 전동차 보급목표를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노와 이스즈는 2022년에 소형트럭 EV를 판매</li> </ul>

- 한편, 중국(広西자동차그룹)은 EV 경상용차를 내년 9월 일본 시장에 진출 예정이며, 가격면에서 일본 업체에 비해 우위
- 중국산은 기존 차량 가격인 130만~150만엔 이하로 설정될 예정이며, 경상용차와 소형트럭에서 차이는 있지만 중국산 EV가 기존차량과 동등한 가격으로 제공되면, 기존차량 가격의 2배이상인 일본 업체는 열세일 수밖에 없음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 3 日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역대 최다

#### □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급증

-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인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함(7/26 제국데이터뱅크)
  -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음
- 호텔 및 여관업도 약 1.6배인 104건으로 역대 2번째 기록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 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포기형' 기업 활동 정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피해

-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열린 영향을 1순위로 꼽고 있음
  - 무관중 올림픽으로 인한 해당 업계의 손실 규모는 1,340억엔(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하며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숙박업계에 무더기 파산을 예상해야 하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함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

### 1 日, 6월 완전실업률 2.9% 기록, 3개월 만에 개선

#### □ 2021년 6월 완전실업률 2.9% 기록, 3개월 만에 소폭 개선

- 일본 총무성이 지난 30일 발표한 2021년 6월 완전 실업률(계절 조정치)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함
  - 완전 실업률은 3개월 만에 개선을 보였으며 후생 노동성이 같은 날 발표한 유효구인배율<sup>1)</sup>은 1.13으로 전달과 비교하여 0.04 포인트 상승하였음
  - 유효구인수(약 216만명)는 전월대비 답보상태인 반면 유효 구직자수(약 191만명)는 전월 대비 3.6% 감소해 상대적으로 유효구인배율이 높아졌음
  - 완전 실업자 수는 206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만 명 증가하였음. 완전 실업자 수는 최근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음
- 취업률은 60.6%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0.4 포인트 상승하였음. 특히 15~64세의 취업률은 77.7%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0.6 포인트 증가함
  - 신규 취업자 수는 6,692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2만 명 증가하였으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5만 명 감소한 3,697만 명, 여성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27만명 감소한 2,995만 명을 기록함
  - 신규 취업자 수를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 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하면 55만 명 적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회복이 더딘 것으로 보임
  -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에서의 신규 구인이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10.6% 감소해, 주요 산업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되었음. 반면 제조업(전년 동월 대비 39.3%증가)과 운수·우편업(전년 동월 대비 10.5%증가)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1) 일자리를 찾는 사람당 몇 건의 구인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 □ 향후 고용시장 전망 불투명

-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이 확대되고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일본 고용시장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 취업자 수가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해고 및 사업장 형편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률이 감소하는 등 실업률 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일본 고용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월별 완전실업률 추이>



자료원 : 총무성 통계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日, 6월 광공업 생산지수 2개월 만에 상승

### □ 2021년 6월 일본 광공업 생산지수 99.3 기록

-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지난 30일 발표한 2021년 6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9.3<sup>2)</sup>으로 전 달과 비교하여 6.2%의 상승을 보였음. 일본광공업 생산지수는 최근 2개월 만에 상승세로 다시 전환하였음. 이번 상승률은 2020년 7월의 6.9% 증가세 이후 최대치임
  - 5월 광공업생산 지수를 업종별로 보면 전체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 2개 업종이 전월 대비 하락, 2개 업종은 담보상태를 보였음
  - 이번 달 지수 상승에 기여한 업종으로는 자동차공업(전월 대비 22.6% 증가), 생산용 기계공업(전월 대비 8.9%) 등으로 전달 실적에서 크게 반등하였음. 자동차공업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나 자동차 수요에 따른 증산으로 인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임
- 지금까지의 생산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속히 저하된 후, 6월 이후에는 전환, 회복 기조가 이어졌음. 2021년 2월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3월과 4월은 2개월 연속 상승했음. 5월은 다시 하락했으나, 6월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
  - 2021년 6월의 생산 수준은 신형 코로나 감염이 확대되기 전인 2020년 1월(99.1) 수준을 웃돌았음

### <월별 광공업 생산지수 증감추이>



자료원 : 경제산업성 통계자료하여 저자 작성

. 끝.

2) 2015년=100 기준